



**하이클래스**  
**군무원**

**문정호 국어**

2020.7.18. 군무원 국어 9급 기출문제



# 2020년 군무원 국어 9급

2020.7.18. 시행

## 01. 홀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어제 빨간 모자를 샀다.
- ② 봄이 오니 꽃이 피었다.
- ③ 남긴 만큼 버려지고, 버린 만큼 오염된다.
- ④ 우리 집 앞마당에 드디어 장미꽃이 피었다.

01

中 [이론문법]

정답 ④

풀이 ④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인 홀문장이다. '우리(관형어), '집(관형어) '앞마당에(부사어), '드디어'(부사어), '장미꽃이(주어), '피었다'(서술어). 참고로 '우리 집 앞마당에'를 하나의 부사구로 볼 수도 있다.

오답

- ① '모자가 빨갳다'에서 '빨간'은 '모자'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 ② '봄이 오니'가 원인이고 '꽃이 피었다'는 결과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③ '남긴 만큼 버려지다'와 '버린 만큼 오염된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02.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문장은?

- ① 인생을 살다 보면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
- ② 형은 조문객들과 잠시 환담을 나눈 후 다시 상주 자리로 돌아왔다.
- ③ 가벼운 물건이라도 높은 위치에서 던지면 인명 사고나 차량 파손을 일으킬 수 있다.
- ④ 중인이 보는 앞에서 병기에게 친히 불리어서 가까이 가는 것만 해도 여간한 우대였다.

02

中 [어법]

정답 ③

오답

- ① '도움을 받기도 한다'와 호응하는 부사어가 없다. '남에게 도움을 받기도 한다'로 '남에게'를 넣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 ② '환담'은 '괴상한 이야기'일 경우 '환담(幻談)'이고, '정답고 즐겁게 서로 이야기함. 또는 그런 이야기'일 경우는 '환담(歡談)'이다 모두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환담' 대신에 '위로(慰勞)'가 적절하다.
- ④ 김동인의 소설 <운현궁의 봄>의 일부이다. '여간하다'는 '이만저만하게 어지간하다'의 뜻인 형용사이다. '여간하다'의 관형사형인 '여간한'은 부정어와 호응하는 말이므로 '여간한 우대가 아니었다'로 고쳐야 한다. 참고로 '불리어서'는 '부르다'의 피동사인 '불리다'에 연결어미 '-어서'가 붙은 활용형이며, '불리어서'와 준말인 '불리어서'는 모두 맞춤법에 맞는 표현이다.

03. 국어 순화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핸드레일(handrail) → 안전손잡이
- ② 스크린 도어(screen door) → 차단문
- ③ 프로필(profile) → 인물 소개, 약력
- ④ 팝업창(pop-up 窓) → 알림창

03

中 【어휘 순화어】

정답 ②

**풀이** '스크린 도어'는 교통 지하철이나 경전철 승강장 위에 고정벽과 가동문을 설치해 차량의 출입문과 연동하여 개폐될 수 있도록 만든 안전장치이다. 개폐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차단'하는 문으로 순화할 수 없다. '안전문'이 올바른 순화어이다.

오답

'핸드레일', '프로필', '팝업창'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립국어원이나 우리말샘을 통해 이 단어들을 문제의 내용과 같이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04. 밑줄 친 부분의 비유 방식이 다른 것은?

비유(比喻/譬喻): 「명사」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 ① 요즘은 회사의 경영진에 합류하는 블루칼라가 많아지고 있다.
- ② 암 진단 결과를 받아들자,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 ③ 내부의 유리 천장은 없으며 여성들의 상위적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④ 사업이 실패한 후 그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04

上 【문학】

정답 ①

**풀이** 생산직에 종사하는 육체 노동자 전체를 뜻하는 '블루칼라'는 대유법이다. 대유법은 원관념과 연관성이 있는 보조 관념이 원관념을 대신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백의(白衣) 민족'으로 우리 민족 전체를 뜻하는 경우 '흰옷'은 우리 민족 전체를 뜻하는 대유법이 있다. 나머지는 모두 은유법 해당된다.

**오답** 은유법(隱喩法)은 보통 "A는 B이다."의 형식을 통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표현하는 비유의 하나로 설명한다. 은유는 표현 속에 포함된 비유를 숨기는 기법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동일성(同一性)에 기반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숨을 은(隱)을 써, 은유(隱喩)라고 하는 것이다. 은유법의 특징은 원관념이나 보조관념 중 하나를 숨기고 나머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 ② 그의 '마음'이 원관념이고 보조관념은 '산산조각'이 난 물건이다. 보조관념인 '물건'을 숨긴 은유이다.
- ③ '우리 천장'이 보조관념이고 원관념은 생략했다. 여성이 상위진출을 하기 위한 '사회적 제약'을 원관념으로 볼 수 있다. 원관념을 숨긴 은유이다.
- ④ '밑바닥'이 보조관념이고 원관념을 생략했다. 원관념은 그의 '사회적 위치' 또는 '자존심', '경제력' 등으로 볼 수 있다. 원관념을 숨긴 은유이다.

05. 다음 글을 요약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즘 들어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운동을 통한 건강 유지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부지런히 뛰고 땀을 흠뻑 흘린 뒤에 느끼는 개운함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무조건 신체를 움직인다고 해서 다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운동의 강도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체력에 비추어 신체 기능을 충분히 자극할 수는 있어야 하지만 부담이 지나치지 않게 해야 한다. 운동의 시간과 빈도는 개인의 생활양식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랜 운동 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운동 시간이 짧더라도 빈도를 높여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실천하여 운동을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 ① 운동의 효과는 운동의 빈도를 높일수록 좋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쉬지 말고 부지런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 ②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신체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지는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 ③ 신체를 무조건 움직인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동의 강도를 결정한다.
- ④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통해 운동을 생활습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05

中 【비문학】

**[풀이]** 이 글은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 조건을 고려한 운동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②는 '신체에 적절하나 자극이 가해지는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켜야'하는 운동을 설명했으므로 글의 요약으로 적절하다.

**[오답]**

- ① 운동의 빈도는 규칙적인 것이 좋다고 설명했으므로, 빈도를 높일수록 좋다는 설명과 쉬지 말고 부지런히 운동하라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 ③ 이 문제는 글을 요약하는 것이다. 이 글은 효과적인 운동이 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③의 내용은 운동의 효과를 설명하지 않고 운동의 강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을 올바르게 요약한 것이 아니다.
- ④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지 않았다.

06. 국어 로마자 표기법 규정에 어긋난 것은?

- ① 종로 2가 Jongno 2(i)-ga
- ② 신라 Silla
- ③ 속리산 Songnisan
- ④ 금강 Keumgang

06

下 【어문규정 로마자 표기법】

**[정답]** ④

**[풀이]** 로마자 표기법 표기 일람에 따라 파열음 'ㄱ'은 첫소리에는 'g'로 쓰고 받침에는 'k'로 쓴다. 'Geumgang'이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 ① '종로'는 [종노]로 발음하므로 'Jongno'로 쓴다. 행정 구역 단위에서 '가'는 붙임표와 함께 '-ga'로 적는다.
- ② '신라'는 [실라]로 발음하고 'ㄹ'은 'll'로 적는다.
- ③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따라서 '속리산' [송니산]은 'Songnisan'으로 적어야 한다.



08

상 [현대문학]

**정답** ①

**풀이** 김유정의 소설 〈산골 나그네〉의 일부이다. ‘나그네’는 낯선 아낙네인데 홀어머니가 주인인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내고자 찾아왔다. 나그네는 낯은 치맛자락을 걸치고 있으며, 밥그릇의 밑바닥을 긁을 정도로 굶주린 상태이다. 가난한 상태로 떠돌아다니는 처지를 나타내는 속담을 찾아야 한다. ‘패랭이’는 풀을 뜻하기도 하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이 쓰던 것을 뜻하기도 한다. 것에 손가락을 꽂고 다니는 가난한 떠돌이인 ①이 답이다.

① 패랭이에 손가락 꽂고 산다: 아주 가난하여 떠돌아다니며 얻어먹을 정도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답**

②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라: 태산을 올리고 요동하게 하더니 겨우 쥐 한 마리를 잡았다는 뜻으로 크게 떠벌리지만 하고 결과는 보잘것없음을 뜻함.

③ 터진 방앗공이에 보리알 까듯 하였다: ㉠ 버리자니 아깝고 파내자니 품이 들어 할 수 없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성가신 어떤 방해물이 끼어든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보리누름까지 세배한다: 보리가 누렇게 익을 무렵 즉 사오월까지도 세배를 한다는 뜻으로, 형식적인 인사 차림이 너무 과함을 이르는 말.

**참고** 김유정, 〈산골 나그네〉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유랑민의 애환과 연민
- 배경: 1930년대 유랑민이 많던 시기. 산골 주막.
- 줄거리: 홀로 주막을 운영하는 주인은 홀어머니이다. 아들인 덕돌이가 있지만 과거에 덕돌이는 혼인이 무산된 적이 있다. 산골 주막에 홀로 찾아온 나그네인 젊은 아낙네는 가난한 행색에 굶주려 있다. 하룻밤 묵어가는 줄 알았던 아낙네는 주막에서 일을 하게 되고 덕돌이와 혼인을 하기로 약속을 한다. 주인인 홀어머니도 이를 흐뭇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낙네는 덕돌이가 일을 하고 돌아오기 전에 덕돌이의 옷을 훔쳐 달아난다. 사실 아낙네에겐 병든 남편이 있었고, 아낙네는 그 옷을 남편에게 주었다.

09.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은?

- ① 집에 들어가 보니 동생이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 ② 정녕 가시겠다면 고이 보내 드리리다.
- ③ 나는 과일 중에 사과를 제일 좋아한다.
- ④ 둘째 며느리 삼아 보아야 만며느리 착한 줄 안다.

09

중 [이론문법]

**정답** ④

**풀이** ‘둘째’는 ‘순서가 두 번째가 되는 차례의’가 뜻이며 며느리의 순서를 뜻하는 관형사이다. ‘둘째’는 수사, 관형사, 명사의 품사가 모두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관형사로 쓰였다. 나머지는 부사이다.

**오답**

① 여기서는 ‘혼자’가 ‘먹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참고로 ‘나 혼자’라는 생각.’ 또는 ‘나는 혼자이다.’의 ‘혼자’는 명사이다.

② ‘조금도 틀림없이 꼭, 또는 더 이를 데 없이 정말로’의 뜻인 ‘정녕(丁寧)’은 부사이다.

③ 여기서 ‘제일(第一)’은 ‘여럿 가운데 가장’의 뜻이며 ‘좋아한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참고로 ‘제일의 목표’에서 ‘제일’은 명사이다.



12. 언어 예절에 가장 알맞게 발화한 것은?

- ① (아침에 출근해서 직급이 같은 동료에게) 좋은 아침!
- ② (집에서 손님을 보낼 때 손위 사람에게) 살펴 가십시오.
- ③ (윗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며) 건강하십시오.
- ④ (관공서에서 손님이 들어올 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12

中 [언어예절]

정답 ②

**풀이** 집에서 손님을 보내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은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하므로 '살피다'가 포함된 '살펴 가십시오'는 적절한 인사말이다. 이 문제를 처음 접한 수험생은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에서 손위 사람을 보낼 때 드리는 인사는 '안녕히 가십시오.'나 '살펴 가십시오.'가 적절하도록 언급을 하였다. 하이클래스 군무원 국어 이론서 3권의 185쪽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논란의 여지는 없다. 참고로 국립국어원의 새언어생활 자료에도 언급이 된 내용이다.

**오답**

- ① 영어식 표현인 'Good morning'을 직역한 '좋은 아침'은 우리말 표현에 어긋난다. 직장에 출근했을 때 아침 인사로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등을 높임에 맞게 쓰는 것이 좋다.
- ③ '건강하십시오'는 완곡한 의미의 명령 표현이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로 명령문을 사용할 수 없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 ④ 관공서, 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먼저 '안녕하십니까' 또는 '어서 오십시오'로 인사를 해야 한다. 이어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등의 질문을 할 수 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답의 풀이와 같이 교재 3권 185쪽에 언급한 내용이고, 국립국어원의 새언어생활 자료에도 언급된 내용이므로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이라 본다.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계해년(癸亥年)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이름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 ① ) 천지인(天地人) 삼극(三極)의 뜻과 음양(陰陽)의 이기(二氣)의 정묘함을 포괄(包括)하지 않은 것이 없다. 28자로써 전환이 무궁하고 간요(簡要)하며 모든 음에 정통하였다. ( ㉠ )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 ② ) 이 글자로서 글을 풀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 글자로서 송사를 심리하더라도 그 실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③ ) 한 자음은 청탁을 능히 구별할 수 있고 악기는 울려에 잘 맞는다. 쓰는 데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고, 가서 통달되지 않는 바가 없다. 바람 소리, 학의 울음, 닭의 꿇치며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이 글자를 가지고 적을 수가 있다. ( ④ )

-〈훈민정음 해례(解例) 정인지(鄭麟趾) 서문(序文) 중에서-

13. 다음 (가)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상형을 기본으로 하고 글자는 고전(古篆)을 본떴고 사성을 기초로 하고 음(音)이 칠조(七調)를 갖추었다.

- ①                      ②                      ③                      ④

13

中 [고전문법]

정답 ①

**풀이** (가)를 설명한 것이 ①의 뒤에 이어진 내용이다. '상형(象形)'은 '천지인(天地人)의 삼극(三極)'을 뜻하고, '사성을 기초로 음이 칠조(七調)를 갖추었다'는 것은 '모든 음에 정통하였다'는 말이다. 참고로 '고전(古篆)'은 옛 중국에서 한자를 표기하는 데 쓰던 서체의 하나인 '전자(篆字)'를 뜻하는 말이다. 한글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의 여러 옛 글자를 참고했음을 알 수 있는 말이다.

14. ( ㉠ )에 들어갈 접속부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리고                      ② 그런데  
③ 그러므로                 ④ 왜냐하면

14

下 [비문학]

**정답** ③

**풀이** 한글은 음양과 이기의 정묘함을 포괄하였고, 28자로 모든 음에 정통한다. 이 내용을 원인으로 ㉠ 이후에는 백성들이 쉽게 글자를 깨우치고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의 앞은 원인이고 뒤는 결과이다. '그러므로'가 들어가야 한다.

**참고** 정인지 서문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작성한 「어제 서문」과 「예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집현전 학사들이 작성한 「해례」가 이어진다. 그래서 「어제 서문」과 「예의」를 아울러 「본문」이라 칭하고 그 나머지, 즉 집현전 학사들이 새 문자의 제자 경위, 특성,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고 그 용례를 보여 준 부분을 「해례」라 칭한다. 「정인지 서문」은 『훈민정음』 「해례」의 「서문」이라 할 수 있다. 「정인지 서문」의 내용은 『훈민정음』의 「해례」를 집필하게 된 경위, 한자와 이두 사용의 불편함과 새 문자 창제의 동기와 필요성, 세종이 창제한 새 문자의 특징과 장점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세종대왕의 뛰어난 업적을 찬양한 것인데, 집필자들을 대표하여 그 우두머리인 정인지가 작성하여 「정인지 서문」이라 한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15. 우리말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그의 하루 일과를 일어나자마자 아침 신문을 읽는 데서 시작한다.  
② 저녁노을이 지는 들판에서 농부 내외가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 멀리 보였다.  
③ 졸업한 형도 못 푸는 문제인데, 하물며 네가 풀겠다고 덤뻤다.  
④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

中 [어법]

**정답** ②

**풀이** '노을'은 하늘이 별갈게 보이는 현상이지만 '노을이 지다'로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서 '내외(内外)'는 '부부'를 뜻하는 말이므로 자연스러운 사용이다.

**오답**

- ① '일과(日課)'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는 일정한 일'이므로 '하루'와 의미가 중복된다. 또한 '일과를'에서 조사 '를'을 '는'으로 고쳐야 한다. '그의 하루 일과를'을 '그의 일과는'으로 고쳐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③ '하물며'는 '그도 그러한데 더욱이. 앞의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의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의 접속부사이다. '하물며'는 '덤뻤다'와 호응하지 않는다. '덤뻤다'를 '덤비느냐?' 또는 '덤비라?'로 고쳐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④ 주어인 '~것은'과 서술어 '바랍니다'가 호응되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는 것입니다.

16. 밑줄 친 '성김'과 '뽁뽁함'의 의미 관계와 같지 않은 것은?

구도의 필요에 따라 좌우와 상하의 거리 조정, 허와 실의 보완, 성김과 뽁뽁함의 변화 표현 등이 자유로워졌다.

- ① 곱다 : 거칠다
- ② 무르다 : 아무지다
- ③ 넉넉하다 : 푼푼하다
- ④ 느슨하다 : 팽팽하다

16

下 [단어 의미론]

정답 ③

풀이 '성기다'의 활용형인 '성김'은 '물건의 사이가 뜨다'인 '성글다'이고, '뽁뽁하다'의 활용형인 '뽁뽁함'은 '사이가 촘촘하다'이므로 이 둘은 반의 관계이다. '넉넉하다'는 '모자라지 않고 여유가 있다'이고, '푼푼하다'는 '넉넉하다'와 유의어이므로 이 둘은 유의 관계이다. 나머지는 모두 반의 관계이다.

오답

② '무르다'는 '일 처리나 솜씨가 아무지지 못하다.'이고, '아무지다'는 '사람의 성질이나 행동, 생김새 따위가 빈틈이 없이 꽤 단단하고 굳세다.'이다.

17. 한글 맞춤법에 옳게 쓰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는 먼저 미역을 물에 ㉠ 담궈 두고 밥을 ㉡ 안쳤다. 불린 미역을 냄비에 넣고 불을 ㉢ 붙였다. 미역국이 끓는 동안 생선도 ㉣ 졸였다. 마지막으로 두부에 달걀옷을 입혀 ㉤ 부쳤다. 상을 차려놓고 어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렸다. ㉥ 하느라고 했는데 생일상치고 영 볼품이 없는 것 같다.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17

中 [어문규정 맞춤법]

정답 ④

풀이 ㉡의 '안치다'는 '밥, 떡, 찌개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를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린다.'이다. ㉢의 '붙이다'는 '불을 일으켜 타게 하다.'의 뜻인 '붙다'의 사동사이다. ㉣의 '부치다'는 '프라이팬 따위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전병(煎餅) 따위의 음식을 익혀서 만들다.'이다.

오답 ㉠의 '담그다'는 '으' 탈락 용언이므로 '담가', '담가서, 담갔다'로 활용한다. 참고로, '잠궈, 잠궈서, 잠궈다'는 틀리다. 비슷한 예로, '잠가(담그다), 치러(치르다)'도 있다. ㉤에서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는 '조리다'이다. ㉥은 '조렸다'로 고쳐야 한다. ㉥은 '하느라고'가 맞다. '-노라고'는 말하는 이의 말로, '자기 나름으로는 한다고'란 뜻을 표시하며, '-느라고'는 '하는 일로 인하여'란 뜻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하느라고 하였다. / 쓰노라고 쓴 게 이 모양이다. / 소설을 읽느라고 밤을 새웠다. 자느라고 못 갔다."라고 써야 한다.

18. 다음 내용과 관계있는 한자성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선비는 단순한 지식 습득에 목적을 두지 않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선비는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정의를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간다.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다. 선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많지만 상호 연결되어 있다. 자신을 낮추는 자세,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검소하고 청렴결백한 삶 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 ① 見利思義                      ② 勞謙君子  
③ 修己安人                      ④ 梁上君子

18

中 [한자성어]

정답 ④

풀이 '양상군자(梁上君子)'는 '들보 위의 군자'라는 뜻으로, 도둑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다. 이 글과 관련이 없다.

오답

- ① 견리사익(見利思義):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먼저 생각함.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의 정의를 생각하며'와 관련이 있다.  
② 노겸군자(勞謙君子): 큰 공로에도 겸손한 사람. '노겸(勞謙)'은 '큰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함'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자신을 낮추는 자세'와 관련이 있다.  
③ 수기안인(修己安人): 자신을 잘 가꾸어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과 관련이 있다.

19. 다음 밑줄 친 '-의' 중에서 '기쁨의 열매'와 쓰임이 같은 것은?

- ① 조선의 독립국임  
② 천(天)의 명명(明命)  
③ 인도(人道)의 간과(干戈)  
④ 대의(大義)의 극명(克明)

19

上 [이론문법]

정답 ③

풀이 <기미독립선언서>의 일부를 통해 조사 '의'의 종류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기쁨의 열매'에서 '의'는 관형격 조사이다. '인도(人道)'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하는 한자어이고, '간과(干戈)'는 '창과 방패'이며 '무기'를 뜻하는 한자어이다. '인도의 간과'는 무기 '간과'가 '인도'의 속성을 지녀야 한다는 뜻이므로 '인도'의 '간과'를 수식하고 있다. 여기서 '의'는 관형격 조사이다. 나머지는 주격 조사이다.

오답

- ① '조선의 독립국임' → '조선이 독립국임'(조선은 독립국이다): '주어+서술어' 관계  
② '천의 명명(明命)' → '천이 명명'(하늘이 명명하다): '주어+서술어' 관계. '명명(明命)'은 '신이나 임금의 명령'  
④ '대의(大義)의 극명(克明)' → '대의가 극명'(대의가 극명하다): '주어+서술어' 관계. '대의(大義)'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큰 도리', '극명(克明)'은 '매우 분명함'

20. 다음 글에서 밑줄 친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킬트의 독특한 체크무늬가 각 씨족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 1822년에 영국 왕이 방문했을 때 성대한 환영 행사를 마련하면서 각 씨족장들에게 다른 무늬의 킬트를 입도록 종용하면서부터이다. 이때 채택된 독특한 체크무늬가 각 씨족을 대표하는 의상으로 ㉠ 자리를 잡게 되었다.

- ① 정돈(整頓)되었다.
- ② 정제(精製)되었다.
- ③ 정리(整理)되었다.
- ④ 정착(定着)되었다.

20

下 [어휘 한자어]

정답 ④

**풀이** '정착(定 正할 정, 着 붙을 착)'은 여기서 '새로운 문화 현상, 학설 따위가 당연한 것으로 사회에 받아들여짐'으로 쓰였다.

• 정착(定着)되다: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살게 되다. / 다른 물건에 단단하게 붙어 있게 되다. / 새로운 문화 현상, 학설 따위가 당연한 것으로 사회에 받아들여지다.

오답

- ① 정돈(整頓)되다: 어지럽게 흩어진 것이 규모 있게 고쳐져 놓이거나 가지런히 바로잡혀 정리되다.
- ② 정제(精製)되다: 정성이 들어가 정밀하게 잘 만들어지다. 물질에 섞인 불순물이 없어져 그 물질이 더 순수하게 되다.
- ③ 정리(整理)되다: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 한데 모아지거나 치워져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다.

21.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심리학자 융은 인간에게는 '페르소나(persona)'와 '그림자(shadow)'의 측면이 있다고 한다. 페르소나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면서 얻어진 자아의 한 측면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로지 페르소나만 추구하려 한다면 그림자가 위축되어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해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어지게 된다. 한편 그림자는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 성향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에서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충동적인 면이 있지만, 자발성, 창의성, 통찰력, 깊은 정서 등 긍정적인 면이 있어 지나치게 억압해서는 안 된다.

- ① 페르소나는 현실적인 속성, 그림자는 근원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 ② 페르소나를 멀리 하게 되면, 자아는 무기력하게 된다.
- ③ 그림자는 도덕성을 추구할 때, 자발성과 창의성이 더욱 커진다.
- ④ 그림자를 억압하게 되면 페르소나를 더욱 추구하게 된다.

21

下 [비문학]

정답 ①

**풀이** 페르소나는 한 개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면서 얻어진 자아이므로 인간의 현실적 속성을 의미한다. 그림자는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 성향이므로 근원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답

- ② 페르소나만 추구하고 그림자를 멀리하면 인간은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어지게 된다.
- ③ 그림자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충동적인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 ④ 그림자가 위축되면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해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어진다고 했다. 그림자를 억압하게 되면 페르소나를 더욱 추구한다는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25. 주장하는 말이 범하는 논리적 오류 유형이 다른 하나는?

- ① 식량을 주면, 옷을 달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 집을 달라고 할 것이고, 결국 평생직장을 보장하라고 할 것이 틀림없어. 식량 배급은 당장 그만두어야 해.
- ② 네가 술 한 잔을 마시면, 다시 마시게 되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야. 애초부터 술 마실 생각은 하지마라.
- ③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그 부모는 아이들을 망치게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 엄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 ④ 식이요법을 시작하면 영양 부족에 빠지고, 어설픈 식이요법이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암시해. 식이요법을 시작하지 못하게 막아야 해.

25

상 [화법 언어논리]

**정답** ④

**풀이** ④는 논점 이탈의 오류(무관한 결론의 오류)이다. 어떤 논점에 관한 결론이 아니라, 이와 관계 없는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여 무관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오류를 논점 이탈의 오류라고 한다. 식이요법을 시작하는 것과 영양 부족에 빠지는 것은 관련이 없다. 또한 어설픈 식이요법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논점에서 이탈한 결론이다.

**오답** 나머지는 확대의 오류이다. 확대의 오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원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생기는 오류이다. ① 식량을 주면 옷을 달라고 할 것이나, ② 술 한 잔을 마시면 다시 마시게 될 것이나, ③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면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은 모두 확대의 오류에 해당된다.

**2020.7.18. 9급 총평**

	유형	18	19		20	비율
			1차	2차		
1	문학	6	5	7	3	21%
2	문법	2	4	4	4	14%
3	비문학	5	2	2	4	13%
4	어문 규정	5	10	9	4	28%
5	어휘	1		2	1	4%
6	관용어, 속담	(1)				0%
7	한자어, 한자	1		1	2	4%
8	한자 성어	1	1		1	3%
9	고전문법	2	2		1	5%
10	어법, 생활 국어	2	1		5	8%
계		25	25	25	25	100%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군무원 국어 문제가 처음으로 정답과 함께 공개되었다. 군무원 9급 국어 문제는 복원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했지만, 실제 문제를 확인하니 역시 복원된 문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복원된 문제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는 군무원 9급의 유형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기출을 풀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문제를 해결했으리라 생각한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여기서 평이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군무원 9급 국어 문제와 비교했을 때 평이하다는 것이다. 이번 시험 자체만 놓고 보면 어려운 문항들이 몇 문제 있었고, 이 문제들 때문에 당황한 수험생은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 침착한 마음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 갔다면 일부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답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시험 후 만난 수험생들의 입장은 이와 달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총평을 보고 2021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기출을 확인하고 하나씩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정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출제되었다는 점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다. 과거에는 문법과 어문규정을 집중적으로 출제했는데 이번 시험은 어문규정을 줄이고 어법과 화법(생활국어, 언어예절 등)을 출제했다. 또한 한자, 한자성어(한자로만 출제), 순화어 등도 출제를 하면서 한자 공부를 하지 않았던 수험생은 시험을 치르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언제나 드리는 조언으로 “한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길 바란다.

문학에서는 지식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대신에 ‘문학+속담’, ‘고전문법+비문학’과 같이 결합형 문제들이 일부 출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군무원 국어 7급도 마찬가지이며 군무원 국어 시험의 특징이기도 하다. 지문이 포함된 문제는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정답을 찾아야 한다. 공개된 정답으로 가채점을 한 수험생들은 자신의 가채점이 정확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문규정은 어렵지 않았지만 이문법 문제는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문법, 어문규정, 고전문법, 어법’이 모두 문법으로 통합되는 공부라는 면에서 여전히 군무원 국어 시험은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문법 공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주목할 만한 문제는 4번 비유, 9번 품사, 12번 언어예절, 25번 오류이다. 4번 비유 문제는 어려웠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9번 품사 문제는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많이 언급을 했던 예상 문제이다. 12번 언어예절은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 정답의 이유를 알 수 있다. 암기형으로 접근했다면 매우 어려웠겠지만 문제의 의도를 알았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25번 오류 문제는 헛갈릴 수 있었다. 이 문제들은 모두 **[풀이]**에 충분한 설명을 했으니 설명을 읽으며 당시 상황을 돌아보길 바란다.

2019년까지 군무원 국어 7급도 9급과 같이 어문규정에서 출제를 많이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문규정의 문제를 줄였다. 이러한 경향은 9급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를 골고루 출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군무원 국어 시험에 어문규정이 많이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많이 당부하였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공부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주었다. 2020년부터 ‘필기 50%+면접 50%’가 최종합격이 되었으므로 필기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거듭 말하지만 이제 군무원 국어 시험은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었다.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을 믿고 시험을 준비한다면 합격을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